



## 세계 최고 필하모닉, 전주에 온다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내한공연을 갖는다.

올해 창립 66주년이 되는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뉴욕 필하모닉, 베를린 필하모닉, 런던 필하모닉, 상트페테르부르크 오케스트라와 함께 세계 5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로 손꼽힌다.

1951년에 창단되어 현재까지 러시아의 거장 지휘자인 키릴 콘드라신, 드미트리 키타옌코, 바실리 시나이스키, 마르크 에를레트, 유리 시모노프 등이 지휘해 오고 있다.

감명 깊은 공연으로 찬사를 받는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기술적인 완성도와 표현력, 그리고 예술성 있는 연주가 환상적인 조화를 이뤄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차이코프스키 연주에 있어서 유럽의 오케스트라가 질제미를 보이는 반면,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대륙 특유의 거칠고 뜨거운 색채를

▶ 소리문화전당서 25일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차이코프스키 레퍼토리 선보여  
국내에서 사랑받고 있는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교향곡 제5번' 차례로 연주



세르게이 크릴로프

마음껏 분출해 한국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에 전주 공연에서 선보이는 레퍼토리 역시 전곡 차이코프스키의 레퍼토리다. 먼저 러시아의 고전 푸시킨의 산문시 예프게니 오네긴의 동명 오페라 그 중, 폴로네이즈를 서곡으로 선보인다.

그리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바이올린 협주곡 중 하나인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와 Bittersweet(쓰쓸하면서 달콤한, 괴로우면서도 즐거운)이라고 할 수 있는 '교향곡 제5번'을 차례로 연주한다.

교향곡 제5번은 별칭이 말해주듯 달콤 씁스름한 분위기와 차이코프스키만의 화성과 오케스트레이션이 여실히 보여주는 곡으로 이번 공연의 클라이맥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의 지휘는 모스크바 필하모닉의 명예 지휘자인 '유리 보트나리'가 맡는다. 국내 무대에도 자주 선 경력이 있어 대중에게 친숙하다.

바이올린 협연에는 러시아 태생으로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콩쿠르(크레모나) 1위, 프리츠 크라이슬러 콩쿠르(비엔나) 1위, 그라모폰에서 음반 호평을 받은 세르게이 크릴로프가 함께 한다.

예매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과 크에서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 첫 눈처럼 그대 곁으로

포크 가수 김은영 콘서트  
오늘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서

부드럽고 은은한 음색을 지닌 포크 가수 김은영이 23일 오후 7시 30분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첫 눈처럼 그대 곁으로' 콘서트를 연다.

1990년대 라이브 가수로 활동하던 김은영은 60~70년대의 전설적인 혼성 포크 듀엣 '푸아에무아'의 멤버였던 이필원에게 발탁되어 박인희(17기) 한인경(27기)의 뒤를 이어 2001년부터 '푸아에무아'의 3기 보컬로 활동했다.

박인희 씨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그는 "자신의 목소리와 분위기가 그녀의 음색과 비슷해 팀과 쉬이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한다.

'푸아에무아'에서 5년 동안 활동하던 김은영은 솔로로 전환하여 2009년 2월 첫 독집음반인 '그리움을 말하다'를 발매했다. 이어 2012년 5월 제 2집 음반 'The Present, 선물'과 2014년 8월 'Serendipity'를 발표하고 활동 중이다.

예매는 티켓링크에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일상의 소리, 같이 들어보실래요?

내일 남원 사운드 아티스트 레지던시 오픈 스튜디오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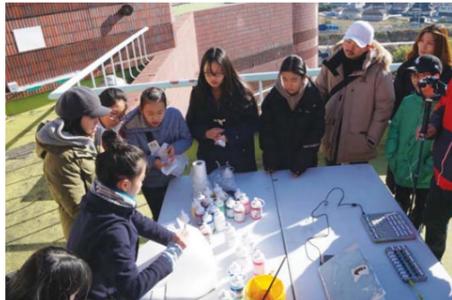
남원에서 일상의 소리를 찾고 예술적 확장 가능성을 찾기 위해 시작된 '2017 남원 사운드 아티스트 레지던시'의 결과 발표 프로그램인 '오픈 스튜디오'가 구KBS방송국(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2일간 진행되는 이번행사는 국내 작가 3인과 국외작가 4인이 2주 동안 남원에 머무르며 남원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기반으로 예술, 자연, 삶에 스며있는 소리를 현대 예술적인 방법으로 풀어낸 사운드 작품을 공개하는 자리이다.

또한 이번 워크숍 일정에는 생태음향 전문 사운드엔지니어 김창훈 작가의 사운드 강연과 페트리 헨 감독의 영화 '침묵을 찾아서' 영화상영회가 함께 열릴 예정이다.

이번 오픈 스튜디오일정은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와 남원 사운드 아티스트 레지던시 페이지(https://www.facebook.com/soundnamwon/)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남원시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



회는 "이번 레지던시에서 남원의 소리가 예술가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갖고 다양한 형태로 재창조 되는 모습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전북 웹툰창작체험관 교육생, 평창올림픽 창작 공모서 '상복 터졌다'

청소년부 최우수상 등 3개 상 동시 수상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원장 이신후)의 전북 웹툰창작체험관 교육생이 평창동계올림픽 창작 웹툰 공모전에서 청소년부 최우수상 등 3개의 상을 동시 수상했다고 밝혔다.

동계스포츠를 주제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마련한 이번 공모전은 평창 동계올림픽 관심 제고 및 전국 웹툰창작체험관 이용 운영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최우수상(상금 150만원)을 수상한 청소년부 김다인 학생의 작품 'DRAW'는 평범한 고등학생들의 아이스댄싱 도전

기를 담고 있다. 수상자에게 국내·외 전시회 개최 참여 및 자료집 제작, 프랑스 앙골렘 국제만화 축제 참가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청소년부 김지영 학생의 '모두의 컬링' (우수상), 일반부 최유경 학생의 '컬링마인드' (우수상), 김중훈 학생의 '가장 빠른 썰매' (장려상) 등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출품한 4작품 모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신후 원장은 "도내 창의인재 양성과 문화콘텐츠 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도내 청소년들의 진로 개척과 예비 웹툰 창작자의 육성과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오늘 도내 여성친화기업 CEO 교류회

전북광역·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신수미)는 23일 오후 2시 센터 대강당에서 여성친화기업 CEO·인사담당자교류회를 연다.

이날 교류회엔 도내 여성친화기업 CEO·인사담당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 인식, 근로자의 일·가정 균형 문화의 조성 및 여성 경력단절예방 지원 등 다양한 사업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엄준하 대표(한국HR협회)의 '사람이 희망, 인적자원을 디자인하라'와 윤석호 공인노무사(재윤노무법인)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특강,

2017년 고용안정사업 및 지원제도 설명회'도 마련된다.

여성친화기업 CEO·인사담당자들로 이루어진 중장년층취업지원센터와 소리아스(sorius) 관련 3중주 부대행사와 새일센터 등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취업자의 취업성공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선정된 총 4편의 당선작(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 외에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박영자 회장과 (주)이엔지푸드 홍성국 부사장의 선창으로 모든 참여자가 함께하는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약속문 낭독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진다. /정해은 기자

www.fbo.or.kr 2017년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안내

축! 전주매일 창간

# 농지은행이 경영위기 농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농업채매 또는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팔아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임차하여 계속 영농하면서 다시 사실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
  -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채매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
- **매입대상**
  - 공부상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
  - 부지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업용시설(고정식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경영희생계획서 등 지원심사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
  - ※ 서식: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비치 및 농지은행 홈페이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표전화 : 1577-7770, 홈페이지 www.fbo.or.kr)